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고대 튀르크 문자로 새겨진 비문(碑文)들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세기 말이었다. 1889년 러시아의 야드린체프(발견자)가 오르콘강 유역에서 미지의 문자로 새겨진 두 개의 비석을 발견하여 서구 학계에 알린 것이 그 시초였는데, 그중 하나의 앞면에는 ‘고궐특근지비(故闕特勤之碑)’라는 비(碑)의 이름이 한문으로 새겨져 있었다. 이를 통해 이 비석이 732년에 사망한 돌궐 제국의 왕자 ‘궐 테긴’의 비석임이 밝혀졌다. 또한 이 비석의 뒷면에는 소수의 모음과 30개 이상의 자음을 나타내는 알파벳식 문자로 비문이 쓰여 있었는데 여러 학자들의 연구 끝에 이 문자가 고대 튀르크 문자임이 확인되었고, 그로부터 1년 뒤인 1893년에 빌헬름 톰센(해독자)에 의해 비문의 전문이 해독되어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다.

⇒ 1문단 : 돌궐 제국의 왕자 ‘궐 테긴’의 비석 ‘고궐특근지비’의 발견과 해독

☑ 1문단의 포인트: ‘고궐특근지비’의 발견자(야드린체프)와 해독자(빌헬름 톰센)는 다른 사람이다. 전개하는 내용의 근거가 되는 대상을 서두에 제시하고 있다.

사실 돌궐 유목민에 대한 기록은 ‘고궐특근지비’가 발견되기 전까지 당시 중국의 입장에서 기술된 사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돌궐 유목민의 모습은 실제와 달리 크게 왜곡되어 표현되기 일쑤였다. 예를 들어 어떤 역사 문헌에서는 돌궐 유목민이 예의와 염치를 모르는 야만인으로 묘사되거나 성곽도 없이 가축을 치며 옮겨 다니는 거칠고 천한 민족으로 표현되었으며, 심지어 시도 때도 없이 약탈이나 자행하는 인면수심(人面獸心)으로 그려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고궐특근지비’의 비문이 발견되고 해독되면서 학계에서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마련되었다.**(접속사 ‘하지만’을 통해 이어지는 내용이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 일 것임을 유추할 수 있음) 이 비문에 돌궐 유목민이 그들 자신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 2문단 :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에 대한 재조명

☑ 2문단의 포인트: ‘고궐특근지비’가 발견되기 전, 왜곡되어 표현된 돌궐 유목민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고궐특근지비’가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고 한 것으로 볼 때,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에서 기존에 알려진 것과 반대되는 돌궐 유목민의 생활상이 제시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재조명된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에서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태양 숭배이다. 특히 태양 숭배에 따른 그들의 방위 관념을 들 수 있다. 고구려 등과 같은 주변의 나라들이 방위를 ‘동 → 서 → 남 → 북’으로 인식했던 것과 달리 돌궐 유목민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믿었던 ‘**동 → 남 → 서 → 북**’으로 인식하였다. (주변 나라들과 대조되는 돌궐 유목민의 방위 관념) 태양의 운행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방위 관념은 ‘동(東)’을 ‘해가 뜨는 곳’, ‘남(南)’을 ‘해가 한가운데인 곳’, ‘서(西)’를 ‘해가 지는 곳’, ‘북(北)’을 ‘밤이 한가운데인 곳’이라고 표현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천막을 칠 때도 문을 언제나 동쪽으로 열어 놓았고, 아침에 해가 뜨면 해를 향해 세 차례 큰절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 역시 그들이 태양을 숭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예이다. (돌궐 유목민의 태양 숭배의 예) 그뿐만 아니라 돌궐 유목민은 태양이 생전의 삶은 물론 사후에까지 관여한다고 믿었다. **그들에게 태양은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었던 ‘텡그리’, 즉 ‘천신(天神)’을 상징하는 대상**이었다.

⇒ 3문단 : 돌궐 유목민의 태양 숭배와 방위 관념

☑ 3문단의 포인트: 돌궐 유목민의 태양 숭배 사상과 이에 따른 방위 관념이 중심 내용이다. 다른 나라의 방위 관념과 대조되는 돌궐 유목민의 방위 관념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태양 숭배 사상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돌궐 유목민의 생활 모습을 예로 들어 그들의 태양 숭배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돌궐 유목민은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고궐특근지비’의 비문에는 고구려의 군주가 ‘뵈클리 카간’이라는 명칭으로 표현되고 있다. ‘뵈클리’는 ‘고구려’, ‘카간’은 ‘최고의 군주’를 나타내는 튀르크 말인

데, 한자로 옮겨 보면 '고구려 황제'에 비견되는 칭호이다. 당시 중국의 황제가 천명을 받아 하늘 아래 온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는 존재로 여겨졌듯이, 돌궐 유목민에게 '카간'(돌궐 유목민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예)은 그들의 제국인 '일'을 지키기 위해서 '텡그리'의 축복과 명령을 받아 위로는 푸른 하늘, 아래로는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권위자로 여겨졌다. 돌궐 유목민은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지상에 두 명의 황제가 있을 수 없다는 식의 당시 중국인들의 정치 관념을 수용하지 않았다.(중국의 정치 관념) 그리하여 그들은 돌궐 제국의 군주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를 지배하는 군주 모두를 황제에 비견하여 '카간'이라는 칭호를 붙였다. 이처럼 돌궐 유목민은 다른 민족들을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정치적 질서와 문화적 특징을 지니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었다.(돌궐 유목민의 정치 관념)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표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돌궐 제국의 '카간'을 비롯한 돌궐 유목민의 이러한 정치적, 문화적 유연성은 그들이 다른 나라와 교역할 때 개방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이 건설한 제국 안에서 여러 이질적인 문화가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 4문단 : 돌궐 유목민의 다원주의적 세계관

☑ 4문단의 포인트: 돌궐 유목민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이 중심 내용이다. '카간'이라는 칭호를 예로 들어 그들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돌궐 유목민은 태양의 축복을 받은 권위자를 뜻하는 '카간'이라는 호칭을 자신의 군주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군주에게도 사용했다. 이는 돌궐 유목민이 주변국을 독자적인 존재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주변국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단락별 중심내용]

○ 1문단 (대상 제시 및 흥미 유발)

1899년 야드린체프에 의해 돌궐 제국의 왕자 '퀸 테긴'의 비석인 '고궐특근지비'가 발견되었고, 빌헬름 톰센에 의해 전문이 해석되었다.

○ 2문단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 '고궐특근지비')

'고궐특근지비' 발견 이전에는 돌궐 유목민이 야만인, 인면수심(人面獸心) 등의 모습으로 왜곡되어 표현되었다. 하지만 '고궐특근지비'의 비문을 통해 그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세계관이 재조명되었다. 기존에 알려진 돌궐 유목민의 모습과 반대되는 내용이 다음 문단에서 이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 3문단 (돌궐 유목민의 태양 숭배 사상)

● 근거

- ① 태양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방위를 인식 (동→남→서→북)
- ② 문을 언제나 동쪽으로 열어둠
- ③ 아침마다 해를 향해 세 차례 큰절을 올림

고구려, 중국의 방위 인식을 대조하며 돌궐 유목민의 방위 관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돌궐 유목민의 생활상을 예로 제시하면서 돌궐 유목민의 태양 숭배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 4문단 (돌궐 유목민의 다원주의적 세계관)

● 근거

최고의 군주를 나타내는 '카간'이라는 호칭을 주변국의 군주들에게도 사용함
중국의 정치 관념과 대조하여 돌궐 유목민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카간'이라는 호칭을 예로 들어 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다원주의: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 연관 개념

문화상대주의: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나라의 독자적인 문화를 그 나라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태도

☑ 주제 : '고궐특근지비'에 드러난 돌궐 유목민의 다원주의적 세계관

※ 지문확인 문제 [서술형 대비]

[단답형 문제]

1.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2. 야드린체프에 의해 '고궐특근지비'의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 ×)
3. 돌궐 유목민은 () 세계관을 추구한다.
4. 돌궐 유목민은 ()을 '천신'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이를 숭배했다.
5. 돌궐 유목민은 방위를 ()로 인식하였다. 이는 ()에 따른 관념이다.
6. 이 글의 주제가 드러난 단락은 몇 번째 단락인가?

7. 튀르크 말로 '카간'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서술형 문제]

8. '고궐특근지비'가 발견되기 전에 돌궐 유목민에 대한 기록은 어떠했는지 서술하십시오.
9. 돌궐 유목민의 태양 숭배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예를 서술하십시오. (3가지)
10. 돌궐 유목민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알 수 있는 예를 서술하십시오.

[연계 변형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편 돌궐 유목민은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고궐특근지비’의 비문에는 고구려의 군주가 ‘뵈클리 카간’이라는 명칭으로 표현되고 있다. ‘뵈클리’는 ‘고구려’, ㉠‘카간’은 ‘최고의 군주’를 나타내는 튀르크 말인데, 한자로 옮겨 보면 ‘고구려 황제’에 비견되는 칭호이다. 당시 중국의 황제가 천명을 받아 하늘 아래 온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는 존재로 여겨졌듯이, 돌궐 유목민에게 ‘카간’은 그들의 제국인 ‘일’을 지키기 위해서 ㉡‘텡그리’의 축복과 명령을 받아 위로는 푸른 하늘, 아래로는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권위자로 여겨졌다. 돌궐 유목민은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지상에 두 명의 황제가 있을 수 없다는 식의 당시 중국인들의 정치 관념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궐 제국의 군주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를 지배하는 군주 모두를 황제에 비견하여 ‘카간’이라는 칭호를 붙였다. 이처럼 돌궐 유목민은 다른 민족들을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정치적 질서와 문화적 특징을 지니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표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돌궐 제국의 ‘카간’을 비롯한 돌궐 유목민의 이러한 정치적, 문화적 유연성은 그들이 다른 나라와 교역할 때 개방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이 건설한 제국 안에서 여러 이질적인 문화가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나)

사실 돌궐 유목민에 대한 기록은 ‘고궐특근지비’가 발견되기 전까지 당시 중국의 입장에서 기술된 사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돌궐 유목민의 모습은 실제와 달리 크게 왜곡되어 표현되기 일쑤였다. 예를 들어 어떤 역사 문헌에서는 돌궐 유목민이 예의와 염치를 모르는 야만인으로 묘사되거나 성곽도 없이 가축을 치며 옮겨 다니는 거칠고 천한 민족으로 표현되었으며, 심지어 시도 때도 없이 약탈이나 자행하는 인면수심(人面獸心)으로 그려지기까지 했다. ㉣그래서 ‘고궐특근지비’의 비문이 발견되고 해독되면서 학계에서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마련되었다. 이 비문에 돌궐 유목민이 그들 자신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다)

고대 튀르크 문자로 새겨진 비문(碑文)들이 세상

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세기 말이었다. 1889년 러시아의 야드린체프가 오르콘강 유역에서 미지의 문자로 새겨진 두 개의 비석을 발견하여 서구 학계에 알린 것이 그 시초였는데, 그중 하나의 앞면에는 ‘고궐특근지비(故關特勤之碑)’라는 비(碑)의 이름이 한문으로 새겨져 있었다. ㉤이를 통해 이 비석이 732년에 사망한 돌궐 제국의 왕자 ‘궐 테긴’의 비석임이 밝혀졌다. 또한 이 비석의 뒷면에는 소수의 모음과 30개 이상의 자음을 나타내는 알파벳식 문자로 비문이 쓰여 있었는데 여러 학자들의 연구 끝에 이 문자가 고대 튀르크 문자임이 확인되었고, 그로부터 1년 뒤인 1893년에 빌헬름 톰센에 의해 비문의 전문이 해독되어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다.

(라)

재조명된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에서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태양 숭배이다. 특히 태양 숭배에 따른 그들의 방위 관념을 들 수 있다. ㉥고구려 등과 같은 주변의 나라들이 방위를 ‘동 → 서 → 남 → 북’으로 인식했던 것과 달리 돌궐 유목민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믿었던 ‘동 → 남 → 서 → 북’으로 인식하였다. 태양의 운행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방위 관념은 ‘동(東)’을 ‘해가 뜨는 곳’, ‘남(南)’을 ‘해가 한가운데인 곳’, ‘서(西)’를 ‘해가 지는 곳’, ‘북(北)’을 ‘밤이 한가운데인 곳’이라고 표현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천막을 칠 때도 문을 언제나 동쪽으로 열어 놓았고, 아침에 해가 뜨면 해를 향해 세 차례 큰절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 역시 그들이 태양을 숭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예이다. 그뿐만 아니라 돌궐 유목민은 태양이 생전의 삶은 물론 사후에까지 관여한다고 믿었다. 그들에게 태양은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었던 ‘텡그리’, 즉 ‘천신(天神)’을 상징하는 대상이었다.

1.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고궐특근지비’의 해독자
- ② 돌궐 유목민의 제사 의식
- ③ ‘태양’의 상징성
- ④ 돌궐 유목민에 대한 왜곡된 견해
- ⑤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

2.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빌헬름 톰센에 의해 ‘고궐특근지비’의 내용이 해독되어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이 재조명되었다.
- ② ‘카간’이라는 칭호를 통해 돌궐 유목민의 개방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③ 돌궐 유목민은 고구려와 다른 방위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 ④ 돌궐 유목민은 태양 운행에 따라 방위 관념을 인식하였다.
- ⑤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은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았다.

3. 다음 중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글의 주제는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예시를 들어 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비유를 통해 대상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사실에 바탕을 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다)에 설명할 대상을 언급하면서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4.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과 성격이 유사한 것은?

- ① 영미: 인도 갠지스강에서 장례의식을 치루는 건 너무 비위생적인 것 같아. 장례문화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 ② 시현: 난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 ③ 신회: 아직 식인 풍습이 남아있는 곳도 있대. 정말 끔찍하지 않니?
- ④ 영철: 다큐멘터리에서 벌레를 먹는 아마존 원주민의 모습을 봤어. 가축을 키우기 힘든 환경이어서 단백질 보충을 벌레로 하나봐.
- ⑤ 시영: 서양 모델들을 보면 정말 이목구비가 예쁜 것 같아. 우리나라 모델보다 더 세련된 것 같아.

5. 다음 중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이름'이 의미하는 대상은 '고궐특근지비'이다.
- ② ㉡: '그래서'로 바꿔 사용해도 문맥상 자연스럽다.
- ③ ㉢: 앞뒤 문맥을 고려했을 때, 접속사 '하지만'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 문장을 삭제해도 다음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 ⑤ ㉠: 돌궐 유목민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용어이다.

6. 이 글을 내용의 흐름상 맞게 배열한 것은?

- ① (다) → (나) → (라) → (가)
- ② (다) → (라) → (나) → (가)
- ③ (나) → (다) → (라) → (가)
- ④ (나) → (가) → (라) → (다)
- ⑤ (다) → (가) → (나) → (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대 튀르크 문자로 새겨진 비문(碑文)들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세기 말이었다. 1889년 러시아의 야드린체프가 오르콘강 유역에서 미지의 문자로 새겨진 두 개의 비석을 발견하여 서구 학계에 알린 것이 그 시초였는데, 그중 하나의 앞면에는 '고궐특근지비(故闕特勤之碑)'라는 비(碑)의 이름이 한문으로 새겨져 있었다. 이를 통해 이 비석이 732년에 사망한 돌궐 제국의 왕자 '궐 테긴'의 비석임이 밝혀졌다. 또한 이 비석의 뒷면에는 소수의 모음과 30개 이상의 자음을 나타내는 알파벳식 문자로 비문이 쓰여 있었는데 여러 학자들의 연구 끝에 이 문자가 고대 튀르크 문자임이 확인되었고, 그로부터 1년 뒤인 1893년에 빌헬름 톰센에 의해 비문의 전문이 해독되어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다.

(나)

사실 돌궐 유목민에 대한 기록은 '고궐특근지비'가 발견되기 전까지 당시 중국의 입장에서 기술된 사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돌궐 유목민의 모습은 실제와 달리 크게 왜곡되어 표현되기 일쑤였다. 예를 들어 어떤 역사 문헌에서는 돌궐 유목민이 예의와 염치를 모르는 야만인으로 묘사되거나 성곽도 없이 가축을 치며 옮겨 다니는 거칠고 천한 민족으로 표현되었으며, 심지어 시도 때도 없이 약탈이나 자행하는 인면수심(人面獸心)으로 그려지기까지 했다. 그래서 '고궐특근지비'의 비문이 발견되고 해독되면서 학계에서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마련되었다. 이 비문에 돌궐 유목민이 그들 자신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다)

재조명된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에서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태양 숭배이다. 특히 태양 숭배에 따른 그들의 방위 관념을 ㉠ 들 수 있다. 고구려 등과 같은 주변의 나라들이 방위를 '동 → 서 → 남 → 북'으로 인식했던 것과 달리 돌궐 유목민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믿었던 '동 → 남 → 서 → 북'으로 인식하였다. 태양의 운행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방위 관념은 '동(東)'을 '해가 뜨는 곳', '남(南)'을 '해가 한가운데인 곳', '서(西)'를 '해가 지는 곳', '북(北)'을 '밤이 한가운데인 곳'이라고 표현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천막을 칠 때도 문을 언제나 동쪽으로 열어 놓았고, 아침에 해가 뜨면 해를 향해 세 차례 큰절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 역시 그들이 태양을 숭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예이다. 그뿐만 아니라 돌궐 유목민은 태양이 생전의 삶은 물론 사후에까지 관여한다고 믿었다. 그들에게 태양은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었던 ‘텡그리’, 즉 ‘천신(天神)’을 상징하는 대상이었다.

(라)

한편 돌궐 유목민은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고궐특근지비’의 비문에는 고구려의 군주가 ㉠‘뵈클리 카간’이라는 명칭으로 표현되고 있다. ‘뵈클리’는 ‘고구려’, ‘카간’은 ‘최고의 군주’를 나타내는 튀르크 말인데, 한자로 옮겨 보면 ‘고구려 황제’에 비견되는 칭호이다. 당시 중국의 황제가 천명을 받아 하늘 아래 온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는 존재로 여겨졌듯이, 돌궐 유목민에게 ㉡‘카간’은 그들의 제국인 ‘일’을 지키기 위해서 ‘텡그리’의 축복과 명령을 받아 위로는 푸른 하늘, 아래로는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권위자로 여겨졌다. 돌궐 유목민은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지상에 두 명의 황제가 있을 수 없다는 식의 당시 중국인들의 정치 관념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궐 제국의 군주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를 지배하는 군주 모두를 황제에 비견하여 ‘카간’이라는 칭호를 붙였다. 이처럼 돌궐 유목민은 다른 민족들을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정치적 질서와 문화적 특징을 지니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표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돌궐 제국의 ‘카간’을 비롯한 돌궐 유목민의 이러한 정치적, 문화적 유연성은 그들이 다른 나라와 교역할 때 개방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이 건설한 제국 안에서 여러 이질적인 문화가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7.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빌헬름 톰센의 ‘고궐특근지비’ 해독을 통해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이 재조명 받게 되었다.
- ② ‘고궐특근지비’의 내용을 통해 돌궐 유목민의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돌궐 유목민의 방위 관념을 통해 ‘태양’을 숭배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돌궐 유목민의 정치 관념은 중국과는 차이를 보였다.
- ⑤ 돌궐 유목민에게 ‘태양’은 최고의 신으로, 사후의 삶까지 관여하는 존재이다.

8. 다음 <보기>의 내용을 통해 ㉠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중화사상은 중국에서 나타난 자문화 중심주의적 사상으로 ‘화이사상(華夷思想)’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중국이 온 천하의 중심이면서 가장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상이다. 여기에는 중국이 문명국으로서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이민족을 둘러싸고 있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민족을 교화(教化)하여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국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자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민족적 자존을 나타내었다.

- ① ‘카간’은 돌궐 유목민의 그들의 황제를 칭하는 표현으로 자국에 대한 우월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 ② 고구려 황제를 ‘뵈클리 카간’이라 칭한 것을 볼 때, 돌궐 유목민은 타국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돌궐 유목민은 고구려를 자신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로 바라보았다.
- ④ 고구려 황제를 ‘뵈클리 카간’으로 칭한 것은 돌궐 유목민에게 고구려는 교화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 ⑤ ‘뵈클리 카간’이라는 표현을 통해 돌궐 유목민의 고구려에 대한 존경심을 엿볼 수 있다.

9.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돌궐 유목민의 다원주의적 세계관
- ② 돌궐 유목민의 태양 숭배 사상과 제사 의식
- ③ ‘고궐특근지비’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
- ④ 중국, 고구려,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의 차이
- ⑤ 문화적 상대주의의 중요성

10. 이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는 무엇인가?
- ② 중국과 돌궐 유목민의 정치 관념의 차이는 무엇인가?
- ③ 고구려와 돌궐 민족의 방위 관념의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 ④ 돌궐 주변국들이 돌궐의 황제를 칭하는 명칭은 무엇인가?
- ⑤ 돌궐 유목민에게 ‘카간’이라는 칭호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11.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와 유사한 것은?

- ① 안방은 별이 잘 든다.
- ② 칼을 증거로 들어 범인을 체포했다.
- ③ 중간고사 때 반에서 5등 안에 들었다.
- ④ 강아지가 병이 들어 걱정이 크다.
- ⑤ 옷을 사는 데 돈이 많이 든다.

12.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영: ‘고궐특근지비’의 비문 내용을 찾아서 돌궐이 민족이 자신과 주변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 ② 정희: 돌궐 주변국에는 태양 숭배 사상이 없었는지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 ③ 수진: 돌궐 주변국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고, 돌궐의 인식과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어.
- ④ 정우: 다원주의적 세계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보고, 개념을 설명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 ⑤ 철민: 돌궐 이민족과 중국의 정치적 관념이 다르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찾아서 내용을 보충하면 좋을 것 같아.

13.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 고구려, 중국 등 돌궐 주변국은 돌궐의 지도자 한 나라의 황제로 인정하고, 이들의 문화를 존중했다.
- ㉡ ‘고궐특근지비’는 돌궐 유목민과 그들 주변국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 ㉢ 돌궐 유목민은 태양을 숭배하며, 자신들의 지도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여겼다.
- ㉣ ‘카간’이라는 명칭을 통해 돌궐 유목민의 타국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알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14. 다음 <보기>의 내용에 대해 ㉠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프랑스 여배우가 한국인의 개고기 식용 문화에 대해 비난했다. 그녀는 한국인

의 개고기 식용은 문화가 아니라 야만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녀는 개는 인간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개를 먹는 것은 식인 문화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한국의 개고기 식용 문화는 존중받을 수 없으며,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① 한국이 영양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를 식용하기도 했다는 의견이 있어.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개고기 식용 문화가 야만적이라고 비판할 수만은 없지.
- ② 개고기를 식용하는 문화는 보편적이지 않잖아. 다른 나라에서 개고기를 먹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한국도 보편적인 문화를 따라가야 돼.
- ③ 여배우가 한국의 우수성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려주고, 한국의 문화가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줘야 해.
- ④ 프랑스 문화는 엄청 세련됐던데……. 그런 나라에서 보기에 좋지 않다면 개고기 식용 문화를 금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 ⑤ 프랑스는 달팽이를 요리해서 먹던데……. 그런 걸 어떻게 먹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프랑스도 식문화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15.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통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왼편 겨드랑이로 한 알을 낳았는데 크기가 닷 되[오승(五升)]들이쯤 되었다. “사람이 새알을 낳은 것은 상스럽지 못하다.” 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목(馬牧)에 버렸으나 여러 말들이 밟지 않았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백수(百獸)가 모두 보호했다. 구름이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일광(日光)이 있으므로 왕은 가져다가 그 어미에게 보내고 기르도록 했다.

- 주몽신화 中 -

- ① 고구려의 시조가 탄생의 고귀함을 지녔기 때문에 돌궐 유목민은 고구려 황제에게 ‘카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군.
- ② 두 나라 모두 지도자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볼 때,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고 유추해볼 수 있겠군.
- ③ 고구려의 시조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설정한 것을 볼 때, 고구려는 돌궐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했군.
- ④ ‘주몽’은 ‘텅그리’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볼 수 있

졌군. 당시 고대 국가들은 태양 숭배 사상을 지니고 있었군.

- ⑤ 고구려와 돌궐의 방위 관념은 다르지만 지도자를 천명을 받은 유일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동일하군.

16.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카간'은 '텡그리'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그들의 제국인 '일'을 지키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 ② 고구려는 태양의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방위를 인식하지 않았다.
- ③ 고대 중국은 돌궐 유목민을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았으며, 그들을 왜곡하여 표현했다.
- ④ 돌궐 유목민은 주변국과는 달리 '태양'이 생전의 삶과 사후의 삶 모두에 관여한다고 생각했다.
- ⑤ 돌궐 유목민은 주변국의 지도자에게 '황제'와 비견되는 칭호를 붙여 사용하였다.

17.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화 현상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고대 중국에서는 여자로 태어나면 3~4세부터 천으로 발을 묶어 발의 성장을 정지시키는 풍습이 있었다. 이를 '전족'이라고 한다. 이는 여자들이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즉, 전족 풍습에는 부녀자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외부 출입을 제한적으로 구속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 ① 다른 문화를 수용하더라도 자신들의 문화와 동등하다는 입장은 가져서는 안 된다.
- ②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에 위배되는 문화까지 독자성을 가진 문화로 인정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 ③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문화를 주변국에 전하여 그들을 교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④ 다양한 문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자신들의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 ⑤ 다른 사회의 문화를 동경하는 태도를 갖고,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반성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18. 각 단락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타인의 말을 인용하여 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나): 인과관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다): 대조와 예시를 사용하여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라): 주변국들의 정치적, 문화적 관점을 설명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교재 변형]

19.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국가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텡그리의 축복과 명령을 받고, 지혜와 용맹이라는 두 덕목을 갖춘 카간이 탄생해야 하고, 그는 국가 경영의 근간을 조법(祖法)에 두어야 한다. 관리들과 평민들은 카간의 명령에 복종하여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야 하고, 카간은 외튀켄 산지에 본거를 두고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하면서, 대상(隊商)을 보내 재화를 모으고 백성들을 많이 하고 배부르게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조법(祖法): 선조가 시작한 법
- 대상(隊商): 사막이나 초원과 같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방에서, 낙타나 말에 짐을 싣고 떼를 지어 먼 곳으로 다니면서 특산물을 교역하는 상인의 집단

- 고궐특근지비((故闕特勤之碑)의 비문 중에서

- ① 군주는 천신(天神)의 명을 받은 존재로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직분을 갖는다.
- ② '카간'은 텡그리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황제를 뜻하는 호칭이다.
- ③ '카간'은 주변국의 침략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 ④ '카간'은 주변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텡그리'에게 제사를 지낸다.
- ⑤ 돌궐 유목민은 중국, 고구려와 달리 군주의 권위를 태양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믿었다.

[20-21]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20.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고구려 초기에는 지배층의 무덤 방향을 일관되게 서쪽을 향하여 축조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러한 풍습을 통해 고구려인의 방위 관념에 반영된 세계관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고구려인은 고분의 입구를 서쪽으로 내고 고분 안의 동쪽 천장에는 태양을 그렸다. 이러한 구조는 고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항상 태양이 뜨는 방향인 동쪽을 바라보게 설계된 것이다. 이렇게 고분의 입구를 서쪽에 만든 것은 사후의 세계라고 믿었던 고분에 들어갈 때 동쪽의 태양을 보고 먼저 경배할 수 있게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 ① '돌궐 유목민'과 '고구려인'은 동일한 방위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 ② '고구려인'은 '돌궐 유목민'과 다른 독자적인 고분 문화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 ③ '돌궐 유목민'과 달리 '고구려인'은 태양이 사후 세계에만 관여한다고 생각했다.
- ④ '고구려인'은 '돌궐 유목민'과 달리 태양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에 따라 방위를 인식했다.
- ⑤ '고구려'와 '돌궐'에는 '태양'을 신성하게 여기는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21. <보기>와 윗글을 참고하여, '돌궐 유목민'과 '고구려인'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 '고구려인'과 '돌궐 유목민'은 각자의 독자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고분 문화를 형성했군.
- ㉡ '고구려인'과 '돌궐 유목민'의 방위 관념은 다르지만, 태양을 숭배한다는 세계관은 동일했군.
- ㉢ '고구려인'과 '돌궐 유목민'은 서쪽을 '해가 지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분의 입구를 서쪽으로 향하게 한 것이군.
- ㉣ '고구려인'도 태양을 숭배했기 때문에 '돌궐 유목민'이 고구려 군주에게 '카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이군.

- ① ㉡, ㉣
- ② ㉡, ㉣
- ③ ㉡
- ④ ㉣
- ⑤ ㉢, ㉣

정답 및 해설

<지문확인 문제>

1. 고궐특근지비

2. ×

‘고궐특근지비’는 빌헬름 톰센에 의해 전문이 해석되었다. 야드린체프는 비석을 발견한 사람이다.

3. 다원주의적

4. 태양

5. 동→남→서→북, 태양 숭배

6. 4번째 단락

7. 최고의 군주

[서술형 문제]

8. 야만인, 천한 민족으로 표현되었으며, 약탈을 자행하는 인면수심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9. ① 태양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방위를 인식하였다.

② 문을 언제나 동쪽으로 열어두었다.

③ 아침에 해를 향해 세 차례 큰절을 올렸다.

10. 최고의 군주를 나타내는 ‘카간’이라는 칭호를 자신의 군주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군주에게도 사용했다.

<연계 변형 문제>

1	②	2	⑤	3	③	4	④	5	⑤
6	①	7	②	8	③	9	①	10	④
11	②	12	③	13	⑤	14	①	15	④
16	④	17	②	18	③	19	①	20	⑤
21	③								

1. <답> ②

돌궐 유목민에 대한 제사의식은 지문을 통해 알 수 없다. ‘해를 향해 세 번 절을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아침에 행하는 의식 중 하나로 제사의식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고궐특근지비’의 해독자는 빌헬름 톰센으로,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태양은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었던 ‘텡그리’, 즉 ‘천신(天神)’을 상징하는 대상이었다는 내용을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의 내용을 통해 일부 문헌에서 돌궐 유목민을 ‘야만인, 천한 민족’ 등으로 왜곡하여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돌궐 유목민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알 수 있다.

2. <답> ⑤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은 주변국(중국)과 차이를 보인다. 중국과 달리 돌궐 유목민은 다른 민족들을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정치적 질서와 문화적 특징을 지니는 존재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오답 풀이>

① (다)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가)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라)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라)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답> ③

이 글에 ‘비유’는 쓰이지 않았다. 이 글은 ‘고궐특근지비’의 해독으로 인해 재조명된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오답 풀이>

① 돌궐 유목민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은 이 글의 주제라 할 수 있다.

② 돌궐 유목민의 ‘태양 숭배’에 관련된 내용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⑤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을 알 수 있게 된 근거자료인 ‘고궐특근지비’에 대해 언급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4. <답> ④

돌궐 유목민은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추구하여, 다른 민족의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기 중 ‘영철’은 아마존 민족의 식용 문화를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들의 독자적 문화적 특성을 수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②③ 자신의 입장에서 특정 문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⑤ 다른 문화가 자신이 속한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동경하고 있다.

5. <답> ⑤

‘텡그리’는 ‘천신’을 상징하는 용어로, 돌궐 유목민의 태양 숭배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단어이다. 돌궐 유목민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단어는 ‘카간’이다. ‘카간’이라는 호칭을 주변 민족들의 군주에게도 사용했다는 점에서 돌궐 유목민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고궐특근지비’가 돌궐 제국의 왕자 ‘궐 테긴’의 비석

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으므로, '이'가 지칭하는 대상은 '고궐특근지비'이다.

- ② 앞뒤 문장이 이어지는 내용으므로 접속사 '그래서'로 수정해도 내용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 ③ 돌궐 유목민의 왜곡된 모습과 다른 새로운 세계관이 재조명되었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접속사 '하지만'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돌궐 유목민의 태양 숭배 사상에 따른 방위 관념을 설명하는 단락이므로 예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해도 무방하다.

6. <답> ①

'고궐특근지비의 발견 및 해독 → 해독된 비석을 통한 돌궐 유목민 세계관의 재조명 → 돌궐 유목민의 태양 숭배 사상과 방위 관념 → 돌궐 유목민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의 순서로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앞뒤 단락에서 반복되는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배열해야 한다.

7. <답> ②

본문에서 '고궐특근지비'에 드러난 돌궐 유목민의 자긍심은 확인할 수 없다. 본문에서는 돌궐 유목민의 태양 숭배 사상과 다원주의적 세계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다)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라)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다)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답> ③

돌궐 유목민은 돌궐 제국의 군주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를 지배하는 군주 모두를 황제에 비견하여 '카간'이라는 칭호를 붙였다. 이는 다른 민족들을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정치적 질서와 문화적 특징을 지니는 존재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 풀이>

- ① 돌궐은 '카간'이라는 호칭을 자신의 군주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군주에게까지 사용했다. 따라서 '카간'에 돌궐 유목민의 우월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 ② 고구려 황제를 '뵈클리 카간'이라고 칭한 것은 고구려를 독자적인 문화를 지닌 하나의 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궐 유목민이 타국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가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 ④ '고구려'를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문화를 지

닌 국가로 바라봤기 때문에 '교화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

- ⑤ 돌궐 유목민은 '고구려'를 독자적인 문화를 지닌 존재로 인정하여 '카간'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이다. 이에 고구려에 대한 존경심이 반영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9. <답> ①

이 글에서는 재조명된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태양 숭배 사상과 다원주의적 세계관이 이 글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돌궐 유목민의 제사 의식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③ '고궐특근지비'는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비석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가치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④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과 고구려의 예시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내용으로 볼 수 없다.
- ⑤ 돌궐 유목민의 문화적 유연성을 다룬 글이다. 본문에서는 문화적 상대주의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지 않다.

10. <답> ④

돌궐 주변국들이 돌궐 황제를 칭하는 명칭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 단락의 내용을 통해 질문의 답이 '고궐특근지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라) 단락의 '돌궐 유목민은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지상에 두 명의 황제가 있을 수 없다는 식의 당시 중국인들의 정치 관념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다) 단락의 내용을 통해 돌궐 유목민은 주변국과 달리 태양의 진행방향에 따라 방위를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라) 단락의 내용을 통해 돌궐 유목민에게 '카간'은 그들의 제국을 지 키기 위해서 '텡그리'의 축복과 명령을 받아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권위자였음을 알 수 있다.

11. <답> ②

㉠에 쓰인 '들다'는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사실을 가져다 대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②이다.

<오답 풀이>

- ① 빛, 별, 물 따위가 안으로 들어오다.
- ③ 어떤 범위나 기준, 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속하거나 포함되다.
- ④ 몸에 병이나 증상이 생기다.
- ⑤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

12. <답> ③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돌궐 이민족의 세계관이다. '태양의 상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돌궐 이민족의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후 세계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 보충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나) 단락에서 '고궐특근지비'의 비문에 돌궐 유목민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지가 드러나 있다고 했다. '고궐특근지비'의 내용을 조사하여 설명하는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 ② (다) 단락에서 돌궐 유목민의 태양 숭배 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주변국의 태양 숭배 사상을 조사하여 비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라) 단락에서 돌궐 유목민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원주의'에 대한 개념을 조사하여 설명하는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 ⑤ (라) 단락에서 '중국'과 '돌궐 유목민'의 정치 관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시를 조사하여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13. <답> ⑤

'고궐특근지비'의 발견과 해독으로 인해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이 재조명 받게 되었다. 비석의 내용을 통해 돌궐 유목민의 태양 숭배 사상과 주변국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 중국의 입장에서 기술된 사료들에는 돌궐 유목민이 야만인, 인면수심 등의 왜곡된 모습으로 표현됐다.
- ㉡ 돌궐 유목민이 태양을 숭배한 것은 맞지만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상의 유일한 권위자로 보지는 않았다. '카간'이라는 명칭을 주변국의 지도자에게도 사용한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4. <답> ①

'카간'은 돌궐 유목민의 다른 국가에 대한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는 명칭이다. 돌궐 유목민은 다른 민족들을 독자적인 정치적, 문화적 특징을 지니는 존재로 인정하였다. 이와 가장 밀접한 것은 ①이다.

<오답 풀이>

- ② 보편적이지 않는 문화는 문화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다른 나라의 문화보다 자신의 문화가 더욱 우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프랑스 문화를 동경하며,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⑤ 자신이 속한 문화권의 가치관으로 상대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5. <답> ④

<보기>의 주몽신화에는 태양 숭배 사상이 드러나 있다. '알 위에는 언제나 일광(日光)이 있으므로-'에서 태양 숭배 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햇빛과의 지속적인 연관은 태양을 숭배하는 고대인의 사상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돌궐 유목민도 '태양'을 '텡그리' 즉, '천신'의 상징으로 여기며 숭배했다. 이를 통해 당시 고대 국가들 사이에는 태양 숭배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카간'이라는 명칭은 다른 국가들의 독자적인 정치, 문화적 관념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다. 고구려 시조 탄생의 신성함 때문에 '카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당시 자신들의 지도자를 신성한 존재로 그려내는 것은 보편적인 문화였다. 본문과 <보기>의 내용만 가지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고 유추하기는 어렵다. 또한, 지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가 아니다.
- ③ 건국신화의 내용만으로 고구려가 돌궐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⑤ <보기>의 내용에서 고구려의 방위 관념은 알 수 없다. 또한, 돌궐 유목민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상의 유일한 지도자로 여기지 않았다.

16. <답> ④

돌궐 유목민에게 '태양'은 생전의 삶, 사후의 삶에 관여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라)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다)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라)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답> ②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도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치가 있다. 자유, 인권 등이 이에 속한다. 돌궐 유목민이 추구한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할 때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돌궐 유목민은 다른 민족을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문화를 지니는 존재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모든 문화가 다 옳다는 극단적인 판단은 지양해야 한다. 문화 상대주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이 갖춰져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문화를 이해할 때는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그 나라의 맥락 내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문화사대주의, 자문화중심주의로 치우칠 수 있다.
- ③ 역사적 배경, 환경에 따라 문화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개방적인 태도로 수용해야 한다.
- ④ 모든 문화를 자신의 문화권에 맞는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 ⑤ 각 문화마다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타 문화는 동경하고, 자문화에 대해서는 반성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옳지 않다.

18. <답> ③

- ▷ 예시: 문을 동쪽으로 열어 놓는 점, 아침에 해를 향해 큰절을 하는 점 등을 예로 들어 태양 숭배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 ▷ 대조: 주변 나라들의 방위 관념과 돌궐 유목민의 방위 관념을 대조하여, 돌궐 유목민의 태양 숭배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 단락에서 타인의 말을 인용하는 내용은 없다.
- ② 인과 관계란 ‘원인-결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나) 단락에서 ‘원인-결과’의 구성은 찾을 수 없다.
- ④ (다) 단락에서 비유적인 표현은 찾을 수 없다.
- ⑤ (라) 단락에서 주변국들의 정치적, 문화적 관점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9. <답> ①

<보기>에서 보면 국가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텡그리’의 축복과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텡그리’는 ‘태양’을 가리키며, 이는 ‘천신(天神)’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 단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 단락에서 ‘카간’을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텡그리’의 축복과 명령을 받아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권위자로 여겼다고 하였

으므로 답은 ①이다.

<오답 풀이>

- ② 돌궐 유목민은 ‘카간’이라는 호칭을 주변국의 군주에게까지 사용했다.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황제를 뜻하는 호칭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지문 내용에 ‘카간’의 덕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 ④ 돌궐 유목민의 제사 의식은 <보기>와 지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⑤ (라) 단락에서 중국도 황제를 하늘 아래 온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는 천명을 받은 존재로 여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중국, 고구려와 달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20. <답> ⑤

<보기>의 내용에서 ‘고분에 들어갈 때 동쪽의 태양을 보고 먼저 경배할 수 있게 의도한 것’이라는 내용을 볼 때, ‘고구려’에도 태양 숭배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고구려는 ‘동→서→남→북’으로 방위를 인식했고, 돌궐은 ‘동→남→서→북’으로 방위를 인식했다.
- ② <보기>와 지문의 내용으로 돌궐 유목민의 고분 문화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 ③ 태양이 사후 세계를 관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보기> 내용을 통해 파악하기 어렵다.
- ④ 고구려는 ‘동→서→남→북’으로 방위를 인식했다. 따라서 태양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에 따라 방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21. <답> ③

고구려는 ‘동→서→남→북’으로 방위를 인식한 반면, 돌궐은 ‘동→남→서→북’으로 방위를 인식했다. 하지만 태양을 보고 경배한다는 점에서 고구려도 태양 숭배 사상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 ‘돌궐 유목민’의 고분 문화는 <보기>와 지문의 내용으로 알 수 없다.
- ㉡ ‘돌궐 유목민’이 고분의 입구를 어느 방향으로 했는지는 <보기>와 지문의 내용으로 알 수 없다. 또한 ‘고구려인’이 고분의 입구를 서쪽으로 한 것은 동쪽의 태양을 보고 먼저 경배할 수 있게 의도한 것이다.
- ㉢ ‘돌궐 유목민’이 주변국의 군주에게 ‘카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은 그들을 독자적인 문화를 지닌 존재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구려가 태양을 숭배했기 때문에 ‘카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고 보

기 어렵다.